우리 모두가 消費者이다

←生産製造業者의 良心을 바랄뿐→

食品工業誌의 創刊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創刊 취지에 食品工業에 關한 硏究 및 國內外 技術情報의 교환과 國民保健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이라 적혀 있었읍니다. 이러한 연구 協會誌는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것이나,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發行의 決心을 한 食品工業協會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韓國女性團體協議會
職業部長
金 淳

지금, 이 자리에서 食品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質問은 지나가는 三尺童子에게 물어도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웃어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그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 그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 져 온 것이 우리 社會입니까. 人體에 直接 惡影響을 주는 工業用 色素가 자라나는 어린 입을 통하여 얼마나 먹혀 졌읍니까, 롱가리트가 어떻고, 食用油에 무엇이 섞여있고, ……고추가루에도 톱밥이 섞여 있느니 등, 그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까?

"國力이 體力"이요 "體力이 즉 國力"인데…… 어찌하여 이렇듯 무모한 일이 우리 社會에 버젓이 범람하고 있었는지? 그 責任을 나는 生産者에게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고로, 業者에게 良心운운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라는 것과 같다고 누가 했듯이, 어려운 일이라 보겠읍니다. 그러다면, 그 누구에게 責任이 있는가? 消費者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의 責任이 더 크다고 보겠읍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양순했고, 점잖았고, 너무나 무관심 했고, 또 무식했고, 너무나 어리석었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있는 소비자는 않일 것입니다.

흔히들, 消費者 보호하면은 어떤 女性團體에서 혹은 몇몇 人士만이 關係되는 것으로 착각되어 왔읍니다. 消費者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人間이 이 世上에 태어나면서 부터 모두가 消費者일 것입니다. 貧富貴賤의 差異는 있고 地位의 上下는 때에 따라 變하기도 하지만, 消費者라는 代名詞는 벗어 버릴 수가 없는것 입니다. 오갹 소리를 내면서 부터 여러가지 物件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完全한 消費者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가다 消費者입니다.

그런데, 生產業者는 가끔 이 眞理를 잊어 버리는 것 같읍니다. 만들어서 팔면은 그만이라는 그것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自己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언제, 어디서, 사랑하는 자기 子息이 먹으며 가지고 놀 수 있다는 事實을 단 한번 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無責任한 일은 못했을 것입니다.

飛躍하는 經濟發展 段階에 있어 生產에 置重하여야 되겠고 모든 主力은 오직 生產에 바쳐야 된다는 事實을 우리도 알고 있읍니다. 一方的인 市場構造로 사는 消費者의 立場은 조금도 反映이 안되었던 그러한 時代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역경을 이미 지나지 않었나 봅니다.

中進國 中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우리 경제는 이제는 Saleis market에서 Buyeis maket로 轉向할 수 있는 時機라 보아도 되겠읍니다. 消費者들도 이제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무관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特히, 食品에 대하여는 지금도 소세이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 말이 많읍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테이트와 보다 넓은 제몽으로 정리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소비자가 눈을 뜨고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이상 부정 불량식품은 퇴치될 것이며,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는 무허업소는 반드시 도산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發言이 있다면, 生產業者는 그들 나름의 眞實性을 부탁할 뿐입니다. 다름아닌 당신들의 귀여운 子女가 먹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絕對로 不正·不良物品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 食品工業誌의 發刊에 거는 우리의 期待는 크다고 하겠읍니다. 自體內의 좋은 硏究反省의 機會가 될 것이며, 消費者의 교량지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많은 發展과 번영 있기를 바랍니다.

"못한다"는 말은 간부의 禁句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方法"으로는 못한다, "지금 당장에는 못한다, "자기 혼자서는" 못한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외에 "못한다"는 것은 現實的인 비지네스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들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가지 提案을 하고 싶다. 그것은 "못한다" "무리다" "곤란하다"등의 自己 催眠用語를 禁句로 하는 것이다.

部下 직원에게도 이런 말은 못하게 하여야 한다.

"自己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部下에게 말했을때, "못합니다" "무리입니다"하거든 이 "못한다" 세가지 중 어느 것인지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의 方法으로는"이 생략되어 있기든 "그럼 지금까지의 것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라고 응수한다.

"지금 당장에는"이 빠져 있는"올·오아·나싱" 思想 이기든, "할생각만 있다면 현재의 체제로 우선 1%라도 좋으니 着手하세"라고 나간다 自己 혼자서는"이 생략된 것이라면 "누구의 힘을 빌리면 되겠어?"라고 대꾸한다.

간부가 모이는 會議에서도 마찬가지다. 罰金制度를 만드는 것도 좋다. 여하튼 못한다는 理由를 열심히 硏究해 보아야 時間浪費 뿐이고 所得은 없다. 시간의 浪費뿐 아니라 이것을 되풀이 하면, 모두 기분이 沈滯해진다. 이같이 "못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간부는 욕스러운 별명을 선사 받게 될 것이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幹部는 辭表를 써라

<發見能力 中에서>